

올바른 의사전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않아 엉뚱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때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의사전달은 어렵기만 하다. 자기의 뜻을 올바르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남의 말이나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사람이 하고자 하는 참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특히 정감록 같이 은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무슨 소리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비교적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보려면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관계 정도가 아닐까 한다.

성경에도 보면 3년이나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없이 각기 자기 위주로 사물을 이해해 버리기 때문이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된 예가 우리에게 전해져 온다.

말은 할 수 있으나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맹인 남편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나 말을 못하는 병어리 아내가 함께 살았다고 한다.

하루는 이웃에 불이 났는데 남편이 아내보고 뉘 집에 불이났나 확인하고 오라고 했다. 확인한 아내의 말을 못하니 남편에게 다가가 자기 손으로

남편의 남근(男根)을 살짝 쥐었다.

남편알 아하! 조 서방집에 불이 났구먼, 그런데 우리동리는 조씨가 많으니 어느 조씨지? 하고 묻자 아내는 남편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의 옥문(玉門)에 대었다. 남편알 구멍가게 하는 조씨네 집에 불이났군. 그런데 얼마나 탔나? 하고 물으니 아내는 다시 남편의 남근을 만졌다. 아하, 기동뿌리만 남고 다 탔군 해서 부부간에 한치의 틀림도 없이 의사가 전달되었는데 이는 평소에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전 (정확히는 11월 1일) 미국사료곡물협회에서 「세계의 곡물가격 계속 하락하기만 할 것인가?」라는 제목에 「미국내부의 심각한 움직임이란」 부제를 달아 국내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국제곡물무역에 있어 향후 6개월이 앞으로의 여러가지 변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고 이에 따라 다른 교역분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기간동안에 미국곡물 수출이 현저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미농민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게 될 것임.

-미국은 철저한 생산제한으로 가격을 조절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려 할 것임.

-이에 따라 세계곡물거래 가격진폭의 완충제 역할을 해온 미농산물의 재고가 감소되어 국제곡물시세의 양등은 물론 심한 등락현상을 초래할 것임.

-GATT개편에 대한 지지가 감소될 것임.

곡물수입국들은 지금 미국산 곡물을 구매하는 것이 현재의 가격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제교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 9개월 동안 미곡물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이 시점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것은 곡물수입국에도 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 구체적 설명을 걸드려 7페이지에 대한 장문의 의사전달인데도 그후 나타난 반응은 여러



가지 이었다. 이제 사료곡물 구매가 어려워질 것이니 수입선 다변화와 물량 확보가 급선무다. 또는 6개월 후 우리나라 축산업이나 식품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헐박이다, 아니다, 애원이다 등 반응은 갖가지 이었다.

임진왜란 전에 한국사신이 일본에 갔다와서 일본이 곧 쳐들어올 것이다 아니다 하며 같은 상황을 보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던 우리 조상의 후손답게 같은 글을 놓고 정반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우리에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교훈 등이 있지만 역시 올바른 현황 판단이란 평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관심과 노력없이 불가능 함을 이번 촌극으로 다시 한번 느낀다. 아시아 올림픽 후의 육계불황이 예상되니 입식을 자제하라고 하면 이때 입식하면 되겠구나로 받아들이는 업자도 있어 평소 서로 이해와 신뢰가 올바른 의사전달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발전되어야 할 양계산업

소값이 하락하면서 축종간에도 이제는 경쟁상태로 돌입하는 느낌이 든다. 그간에도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에는 높은 대체성이 있어 왔지만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쇠고기의 경우에는 부족해 고기를 수입해서 먹을 정도이었으니 문제될 리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소값이 몇년째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정치 사회 문제화 하자 닭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요를 쇠고기로 대체해야 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명분은 돼지고기나 계산물은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한 배합사료로 만든 것으로 외화낭비와 식량의 자립기반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몇년전 쇠고기를 수입할 때 육류 소비구조 개선이란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서 대대적으로 벌렸는데 이제 몇년만에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는 것이 애국에서 이제는 쇠고기를 먹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니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

당시나 지금이나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쇠고기는 85년 전체육류 소비량의 20.3%에 불과하다. 육류수요 전체를 자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복지를 위하는 것이고 그중에도 국민이 원하는 식품을 다양하게 좋은 품질로 값싸게 공급하여 의식주 문제중 가장 중요한 식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낭비와 사치가 있어서는 안되지만 아직도 우리는 양질의 단백질을 다양하게 더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 영양학자나 이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다.

둘째로 국내의 자원의 선용이다. 국제화시대에 국내외 자원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사료효율이 가장 좋은 양계산업이야말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셋째 양계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국내에서 양계산물의 수요가 있으니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계산물을 수입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므로 생산비의 약 70%에 해당하는 사료비 외의 30%는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사료비중 어분, 국산 옥수수 보리와 같이 상당부분을 국내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사료, 동물약품, 가공처리, 유통, 운수, 기계기구, 포장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분야에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 경제 사회면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다른 산업에 고용이 가능하고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여 계산물을 수입해서 먹어도 될 형편인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에 계분은 채소 원예산업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농가의 소득원으로 양계산업의 위치와 국내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도는 이미 학자들에 의해 입증된 것으로 알고 있다.

네째 농업중 양계산업은 그 특수성 때문에 자본집약형으로 경쟁력이 강하고 제품의 우수성 때문에 육류중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는 것이 외국의 예인데 이 때문에 질시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다섯째 명분과 현실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보리와 옥수수를 생산해서 사료를 자급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개선해 나갈 뿐이지 이러한 이유로 양계나 양돈산업 역제를 위해 사료공급을 조절하거나 매도 하여서는 안된다.

노는 땅이나 임야를 개발해 초지조성을 해서 낙농이나 육우를 기르면 이상적이지만 한정된 자본의 투자 효율이나 회수율과 이에 따르는 기술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실제 사육농가가 수지가 맞아야 하는데 이러한 여건 때문에 우리의

낙농이나 비육사업이 농후사료 의존형 공장식 낙농으로 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양계 양돈의 역제가 아닌 정부의 대가축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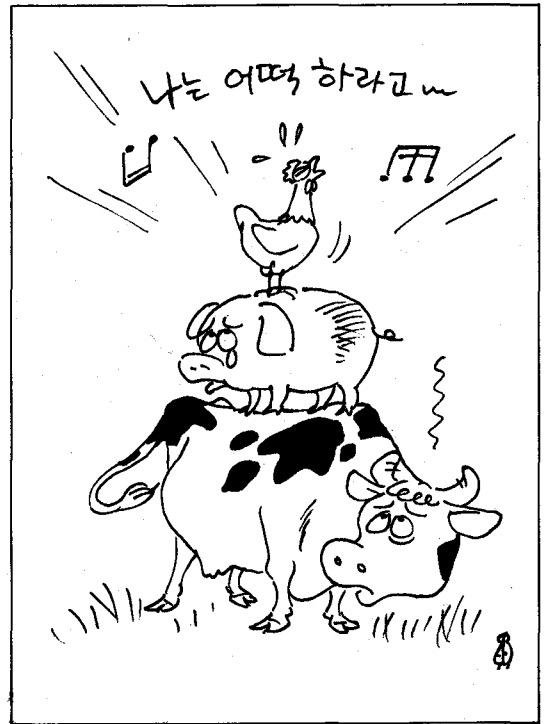
추곡이나 하곡의 수매가를 대폭인상해서 농촌 부채를 일시에 탕감하고 복지 농촌을 이룩하기 싫은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럴경우에 도시 소비자가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운용의 차원에서 수매가격이 결정되듯이 축산물 간에도 서로 소비자의 기호 등 시장 기능과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 안에서 대결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할 것이다.

누구나 왕이 될때에는 요순이나 세종대왕처럼 현군이 되고 싶지 인조처럼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장수에 무릎꿇기를 즐기겠는가? 명분과 현실에는 거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비변화가 오고 있다

이번 경제기획원이 22일 발표한 85년 인구·주택센서스에는 여러가지 흥미로운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아직 절대수에서는 대단하지 못하지만 독신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결혼을 늦게하는 노총각 처녀가 아닌 독신주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독신생활을 이상하게 보지않고 외식산업의 발달로 매식도 쉬워지고 주방기구가 발달하고 각종 인스턴트 식품의 개발로 부엌일도 간편하여진 것도 독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탁문제도 전자동 세탁기가 해결하고 가정에서의 무료함도 오디오나 비데오가 해결하여 앞으로 가족 부양의 책임이 없고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독신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도 남녀의 성비가 맞지 않아 자의반 타의반 독신주의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브로일러협회나 계란협회의 소비 홍보 중 이들 독신자를 대상으로한 소비홍보에 치중하는 것을 본일이 있다.

이들이 식사로 간편하게 후라이드치킨이나 아침식사에 계란을 소비하는 비중이 커가기 때문이다.

이미 30대 이하의 인구가 소비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여 앞으로의 닭고기나 계란의 소비구조와 소비형태 홍보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들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독신자를 위한 닭고기와 계란 식품도 개발할 때가 되었다. ♣